



장수군 가야홍보관 개관식이 4일 한누리전당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널리 널리

장수 동촌리 고분군 국가사적 기념행사·가야홍보관 개관식 개최

장수군 대표 가야문화유산인 동촌리 고분군(東村里 古墳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2호로 지정 기념행사 및 장수군 가야홍보관 개관식이 4일 한누리전당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군수와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 최용범 전북도행정부지사 등 지자체장 및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동촌리고분군 소개와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가수 김혜연, 오승근 등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건립된 가야홍보관은

전라북도 지역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패널, 홀로그램 등으로 알리며 특히, 2층에는 트리아트를 통한 장수군 대표 유적지에 대해 홍보한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군 장수읍 마봉산(해발 723.9m)산줄기에 지름 20~30m 내외의 중대형 고총을 포함한 83기가 분포한 고분군이다.

다양한 유구와 유물의 특성을 근거로 5세기 초엽부터 6세기 초엽에 걸쳐 형성된 가야세력의 수장층 고분군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야문화뿐만 아니라 백제와의 역학관계를 밝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그동안 백제권으로 인식되었던 장수 지역에 가야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 유적이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가야사 연구는 물론,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와 교류사를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고대 사회상을 밝혀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장영수 군수는 "동촌리 고분군 국가사적 제552호 기념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적지정으로 장수기야의 위상과 역사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장수기야 역사를 널리 알리고 밝히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있어보기

김제시, 금산사 마음쉬는 날 힐링 프로그램 진행

김제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음 쉬는 토요일'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 금산사에서 시민들과 향유하는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 활용이 최고의 보존이다'는 가치이래 전통산사에 있던 역사문화재를 향유하고 오늘날 시대 정신에 맞게 재해석 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보 제62호 미륵전에 있던 이야기를 소

재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되었고, 소리꾼 두 명이 출연하는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 이야기', 미륵전 탁본&인경체험, 퓨전 국악밴드의 국보 제62호 미륵전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콘서트로 진행되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은 "국보 제 62호인 미륵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반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문화재 야행 성료... 볼거리·체험·공연 '큰 호응'

익산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4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일원에서 열린 2019 익산문화재 야행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공연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야행을 야간이 아름다운 유적의 자연을 그대로 살려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각 행사장마다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을 비롯한 여러 포토존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내용과 체험재료를 보충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 조형물과 고도육성주민협회의 한지 등 공예 작품전은 별빛 가득한 백제왕궁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했다.

특히, 무왕과 선화공주가 함께하는 천년기원을 담은 탈춤과 천년별밤 소원등 날리기 행

시는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익산 문화재 야행의 대미를 장식했다.

또 탐라마을은 왕궁주막을 포함한 각종 먹거리와 구경할 거리가 많은 야시장으로 변모하여 이를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였으며, 왕궁후원은 자연과 더불어 조용히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문화재 야행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유관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화재 야행은 내년에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익산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민천 기자

신선도 100% 재난 탈출 액션 영화가 온다

부안예술회관에서 17일 '엑시트' 무료 상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17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영화 상영의 날의 일환으로 영화 '엑시트'를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엑시트'는 이상근 감독 작품으로 잔내 폭발 청년백수로 살 길이 막막한 용남(조정석)이 온 가족이 참석한 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연회장 직원으로 취업한 동아리 후배인 의주(윤아)를 만나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어색한 재회를 뒤로하고 칠순잔치가 무르익던 중 의문의 연기가 도심내 빌딩에 피어오르면서 피할 틈도 없이 삼시간에 도시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져 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용남과 의주는 산악동아리 시절에 익혀뒀던 체력과 스킬을 총동원해서 탈출을 위한 기지를 발휘해 극복하는 내용이다.

영화 '엑시트'는 12세 이상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미있고 스릴만점인 영화 한편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 날 행복하게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군민의 신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매달 셋째주 목요일을 '무료영화 상영의 날'로 지정하고 무료로 최신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14시~16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선비문화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전주박물관의 '조선 선비문화'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상반기에도 8회에 걸쳐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진행해 선비문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강연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 강좌는 그 연장선에 있으며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화 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31일에는 '인성교육의 본산, 한국의 서원'이라는 주제로 이배용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11월 7일에는 '선비의 음식문화'를 주제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강연이 있으며, 11월 14일에는 '고문서로 살펴보는 선비문

화'를 주제로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실장의 강연과, 11월 21일에는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을 주제로 김미라 성균관대 초빙교수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일정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비문화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다. 단, 국립전주박물관회 회원과 기존 선비문화 아카데미 수강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비문화와 관련된 조사·연구·자료수집·전시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아카데미 역시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있으며,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khnp.co.kr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정보

- ▶ 개관시간 : 주중 09:00 - 17:00, 주말공휴일 10:00-16:00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 휴 관 일 : 신청·설연휴·추석연휴·기타 회사 기념일 및 지정일
-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 2144 · (063)324-3665 / FAX : 0502-734-0543
- 인터넷신청 : www.khnp.co.kr/한수원 방문신청 / SMS인출 / 무주양수 전시관
- ▶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